

##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와 〈도량 넓은 남편〉의 비교를 통해 본 신뢰의 ‘말하기’와 ‘말하지 않기’의 서사적 의미

김정희\*

### 〈차 례〉

1. 서론
2. 부부관계 위기의 극복과 ‘신뢰’의 양상
3. 신뢰의 징표로서 ‘말하기’와 ‘말하지 않기’의 서사적 차이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와 〈도량 넓은 남편〉을 비교하여 부부 관계에서 ‘말하기’와 ‘말하지 않기’가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두 작품에 나타나는 부부관계 위기의 극복과 ‘신뢰’의 양상을, 3장에서는 신뢰의 징표로서 ‘말하기’와 ‘말하지 않기’의 서사적 차이를 논하였다.

두 작품의 서사는 두 번의 포용을 기본 구조로 한다.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서는 아내의 부정(첫날밤 출산 또는 간통)이 발생하고 남편이 이를 포용하여 관계를 지키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때의 부부 관계는 일방적이다. 이 불균형은 두 번째 사건을 통해 회복된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시간이 흐른 후 아내의 부정과 관련한 과거의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그간의 시간 동안 부부 관계에 신뢰가 깃들어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신뢰가 형성된 부부 관계에서의 ‘말하기’와 ‘말하지 않기’의 전략이 모두 유용하다는 것을 밝혔다.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에서는 ‘말하기’ 전략이 나타나는데, 이때의 ‘말하기’는 이들의 정체성 확립이나 남편의 아내

\* 한국항공대학교 인문자연학부 강사

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필요한 과정으로, 과거의 사건을 해명하는 일이 현재에 필요한 일일 때 이루어진다.

반면 <도량 넓은 남편>에서는 ‘말하지 않기’ 전략이 강조된다. 남편이 아내와 간부의 동침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이를 덮어주고, 훗날 간부가 이 사건을 언급하려 할 때 남편이 제지한다. 여기서 ‘말하지 않기’는 부부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며, 과거의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이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전략이 된다. 말하는 주체가 ‘간부’이고, 간부가 자신의 감정적 미결 과제를 풀기 위해 부부 관계를 위기에 처하게 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말하기’와 ‘말하지 않기’ 모두 상황적 맥락에 따라 신뢰를 지키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설화의 비교를 통해 부부 관계에서 신뢰의 형성과 유지가 단일한 방식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진정한 신뢰는 시간을 들여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입증된다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주제어** <도량 넓은 남편>,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 말하기, 말하지 않기, 부부 간 신뢰

## 1. 서론

<도량 넓은 남편>과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에는 성적 비위를 세상에 폭로 당할 위기에 처한 아내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구해내는 특별한 남자가 등장한다.<sup>1)</sup> 남자의 포용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다는 점 외에도

1)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는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유형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라는 작품명을 택한 이유는, ‘아내 용서하기’라고 하면 ‘첫날밤에 해산한 사건’이 이미 처벌받아야 할 어떤 일로 간주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이보다는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라는 작품명이 사건과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핵심을 전달하며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서사 상황에서도 첫날밤에 해산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으로 간주되고 있음이 분명하나, 그 안에 담긴 관계성을 살필 때는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가치 판단에

빠른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아내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 그렇게 내린 결단을 아쉽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또한 비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부부 관계에서 ‘상대방의 과거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로 논의되어 왔다.<sup>2)</sup>

그런데 두 작품은 이 외에도 공통점이 있다. 범박하게나마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두 작품을 관통하는 서사 흐름을 정리해보면, ‘아내의 부정을 목격한 남편이 그 사건을 덮고 아내를 보살피며, 그 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부부로 살아간다. 그런데 훗날 누군가 이에 대해 말을 꺼낸다. 그러나 부부는 전과 다름없이 함께 잘 살아간다’로 정리해볼 수 있다. 즉, 부부 관계에 치명적 위기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이 수습되고, 후에 그 사건에 대해 다시 말하기가 시도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뒤의 사건은 앞의 사건이 발생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부수적 사건으로, 중요도가 앞의 사건에 비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뒤의 사건이 앞의 사건 뒤에 반드시 뒤따라 나타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뒤의 사건은 전체 서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앞의 사건이 뒤의 사건과 짝을 이루어 서사적 의미를 완성시키고 있다고 보고, 뒤의 사건을 통해 전달되는 서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천착해보고자 한다.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 두 작품의 관계성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이하 첫날밤)>는 ‘여성부정출산담’이나 ‘첫날밤

---

거리를 두고 전체적 의미를 읽어내려는 의도를 담기에 더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도량 넓은 남편> 또한 ‘간통한 아내 용서하기’ 유형으로 명명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이유에서 <도량 넓은 남편>이라는 제목을 택하였다.

2) 정운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통일서사』, 『인문학논총』 47,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5~28쪽. 이 논문에서는 <첫날밤>과 <도량>을 ‘상대방의 과거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엮어서 소개하고 있다. 여러 작품들에서 통일서사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발견하는 데 목표를 두며 두 작품이 주제면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유형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작품에 관한 연구들은 이 작품의 서사적 의미를 전달하는 핵심적 인물이 남편이고, 남편이 '보인 파격적 처신은 초월적(超越的) 관용(寬容)이며 이인적(異人的) 아량(雅量)'<sup>3)</sup>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어서, 남편의 인물 특징에 관해서는 학문적 합의에 도달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남성 인물이 '여성의 부정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설정하여 남편의 포용성을 상대적으로 강조'<sup>4)</sup>하여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도 있고, '덕이란 이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복되게 감싸고 사회를 감동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힘'<sup>5)</sup>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서사를 통해 덕성을 전파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는 평가도 있어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스펙트럼을 갖는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뿐 아니라 뒤의 말하기 사건에 대한 평가 또한 다양하다. 첫날밤의 일을 다시 말하기는 그 일에 대한 '신랑 혹은 신부의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다고 보기도 하고<sup>6)</sup>, 아내에게 '강간당했던 자신의 원통했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게 함으로, 이에 대한 '신랑의 공감'이 이루어져 '상처받았던 아내의 마음을 치료'한다고 보기도 한다.<sup>7)</sup> 또는 '혼전에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신부 역시 억울한 피해자였음이 드러나'지만, 이 사연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기도 한다.<sup>8)</sup> 말하기 사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었는데, 공통

3) 최진형, 「구전설화에 나타난 '파격' -가족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상황과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27쪽.

4) 김도형, 「여성부정출산담의 유형과 의미 -결혼제도와 이중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우리文學研究』 67, 우리문화회, 2020, 16쪽.

5) 홍나래,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덕(德)의 의미와 그 수용양상,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회, 2011, 211쪽.

6) 홍나래(2011), 앞의 논문, 212~214쪽.

7) 한지원, 「공감의 구조를 포함한 설화에 나타나는 공감의 양상과 의미 -혼사 소재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우리文學研究』 69, 우리문화회, 2021, 255쪽.

8) 최진형(2009), 위의 논문, 101~102쪽.

적으로는 말하기 사건이 부부 관계에 대해 암시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말하기 사건의 서사적 역할을 <도량 넓은 남편>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내보고자 한다.

<도량 넓은 남편(이하 도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범을 넘어서 상대를 감싸는 부부서사<sup>9)</sup>로, 상생을 지향하는 건강한 서사로 평가하며<sup>10)</sup>, 바람난 배우자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였다.<sup>11)</sup> 또는 <라쇼몽> 등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아내와 간부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허용하는 서사이기 때문에 포용의 정도가 높다고 평가<sup>12)</sup>하기도 하였는데, 이 논의들의 공통점은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서사를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말하기 사건에 대해서는 부부 관계의 건강성과 관련이 있다기보다 이를 통해 ‘두 남성의 모습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게 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위를 한 남성의 모습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상적인 윤리 규범을 실천하기를 강요당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sup>13)</sup>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도 <첫날밤>과 <도량>은 부부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서사로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말하기 사건이 작품의 서사적 의미

9) 정운채,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2008, 1~37쪽.

10) 정운채, 「문학치료와 자기서사의 성장」, 『우리말교육현장연구』 4-2(통권 제7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0, 7~54쪽.

11) 하은하, 「바람난 배우자에 대한 실화 속 대응양상과 이를 활용한 문학치료적 설계」, 『고전문학과교육』 21, 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11, 169~197쪽.

12) 강미정, 「영화 <라쇼몽>을 매개로 본 <배신한 신부와 의리 지킨 몸종>에서 <도량 넓은 남편>까지」,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295~323쪽.

13) 류명옥, 「“간통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의로움(義)의 이면적 의미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간부(姦夫)를 조정에서 만나다 유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회, 2013, 477~499쪽.

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천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두 작품을 비교하여 드러낼 수 있는 서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논의에 공백이 있다. 개별 작품론을 보면 두 작품은 아내의 외도와 이를 목도하는 남편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남편이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무조건적 포용을 통해 덕과 의를 보여주고 있어, 서사적 친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말하기 사건의 양상에서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분화되고 있다. <도량>에서는 다시 그 사건에 대해 말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말하지 않기가 미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첫날밤>에서는 다시 그 사건에 대해 ‘말하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전달한다. <처용설화>에 대한 연구에서 처용의 상불어(相不語)라고 하는 방식은 벽사진경을 가능케 한다.<sup>14)</sup> <도량>이 <처용설화>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연구<sup>15)</sup>를 참고하면, <도량> 역시 상불어(相不語) 즉, ‘말하지 않기가’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영위하는 비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말하기’를 이야기하는 <첫날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첫날밤>에서 신부의 치부는 왜 다시 말해져야 할까? 이 글은 이 소박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말하기 사건의 앞에는 아내가 자신의 치명적인 치부를 남편에게 들키게 되는 사건이 놓인다.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남편의 이해와 포용에 내맡겨진다. 그런데 부부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앞의 사건 만으로는 부부 관계가 온전한 회복에 도달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의 회복에 관해 말할 별도의 사건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말하기 사건이 얼마간의 세월을 통해 부부 관계가 어떠한 지점에 도달해 있는

14) 정운채, 「고려 「처용가」의 「처용랑 망해사」조 재해석과 벽사진경의 원리」, 『고전문학연구』 13, 한국고전문학회, 1998, 5~29쪽.

15) 정운채, 「<처용가>와 <도량 넓은 남편>의 관련 양상 및 그 문학치료적 의의」, 『고전문학과 교육』 12, 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06, 213~231쪽.

가를 말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흔히 상대의 치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가 관계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면 <첫날밤>에서 '말하기'가 시도되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하기'에도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의 '말하지 않기'와 어떤 상황에서의 '말하기'인지 비교해보는 것이 의미를 탐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살피기 위해 본고의 2장에서는 두 작품에 나타나는 부부관계 위기의 극복과 '신뢰'의 양상을, 3장에서는 신뢰의 징표로서 '말하기'와 '말하지 않기'의 서사적 차이를 논해보고자 한다.

## 2. 부부관계 위기의 극복과 '신뢰'의 양상

두 작품을 통해 관계의 '신뢰'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먼저 각각의 작품에 해당하는 각편들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날밤>의 경우, 부부 관계에 중대한 위기를 가져오는 사건부터 제시된다. 첫날밤 사건 이후 서사의 흐름은 크게 넷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6)</sup>

(기본형)

- (1) 한 남자가 혼인 첫날밤에 신부의 출산을 겪었다.
- (2) 남자는 신부를 보살피는 한편, 급한 일이 생겨 신행을 서둘러 가는 길에 우연히 갓난아이를 발견한 것처럼 꾸며 신부가 출산한 아이를 데려다 키웠다.
- (3)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다.

---

16) 주요 서사 단락은 구연된 흐름을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신부가 잉태 과정에 대해 말하게 되는 상황은 유형 구분에 관여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에든 자유롭게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리하지 않았고, 따로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유형)-1

(4) 열대여섯째 된 아이는 아버지(남자)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아이가 그 뒤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또는 아이가 어머니(신부)에게 출생 내력을 듣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5) 세월이 흘러, 남자가 세상을 떠나자 중이 된 아이가 돌아와 남자의 뒷자리를 명당에 모셨다.

(6) 남자의 집안은 대대손손 번성했다.

(유형)-2

(4) 남자(또는 신부)가 아이와 동생들에게 아버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5) (유형)-1로 이어지기도 하고, 여기에서 끝나기도 함.)

(유형)-3

(4) 아이와 그 뒤 태어난 동생들 모두 출셋길에 올라 집안이 융성하였다.

(유형)-4

(4) 남자는 친구(사촌)에게 첫날밤 사건에 대해 말했고, 이를 들은 권력자가 남자의 급제를 도와주었다.

기본형의 내용은 첫날밤 사건의 발생, 대응, 결과를 다루며, 그 자체로 관계의 성립과 변화의 과정을 담고 있어 완결성을 갖기도 한다.<sup>17)</sup> 그러나 대부분의 각편은 이 사건을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일이 훗날 어떤 모습으로 다시 드러나는가에 관해 후일담을 마련하고 있다.

후일담의 유형은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첫날밤에 태어난 아들이 출가했다가 아버지 사후에 다시 돌아와 명당을 택하여 아버지의

17) 25번, 이선재 구연, <첫날밤에 아기 낳은 색시(중편)>.

피를 치산하는 유형이다. 둘은 아버지가 첫날밤 태어난 아들과 그 후 태어난 아들들에게 첫날밤 사건에 대해 말하는 유형이다. 셋은 후손이 번성하고 성공하는 유형이다. 넷은 남편이 첫날밤에 아내가 아이를 낳은 사건을 우연히 말하였는데 이를 들은 권력자(감사, 어사, 임금)가 급제를 돕는 유형이다. 이처럼 각편의 실상에 따라 후일담을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첫날밤에 아이를 낳은 신부를 포용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 또는 대사회적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동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후일담을 남편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출 때 내릴 수 있는 평가이다. 후일담을 부부 관계에 초점을 두고 보면 첫날밤 사건이 이후의 부부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즉, 신랑과 신부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왔는가에 대해 살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후일담을 통해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이해로 살아갔을 때 어떤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조망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첫날밤 사건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한 활인의 행동이 핵심이고, 시혜를 베푸는 사람과 입은 사람이 명확하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이기 때문에 후일담이 앞의 사건과 어떠한 의미 맥락을 형성하는가를 살피는 것을 통해 이러한 시혜의 문제가 특히 지속을 도모하는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첫날밤에 발생한 사건은 신랑 덕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 이는 대외적인 입장이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내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영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살피기 위해 후일담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말하였는가를 보았다. 첫날밤 사건이 1차 사건이라면, 후일담은 2차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2차 사건은 첫날밤 이후 정태적 상태에 놓여 있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때에는 누가 무엇을 궁금해하는가에 따라 첫날밤 사건을 잉태 사건과 출산 사건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

즉,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혼외 자식을 낳아서 첫째만 아버지가 다른 것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신부가 누구와 관계하였는가를 궁금해하기도 한다. 누구에게서든 1차 사건이 다시 소환되어 관계의 변화를 추동하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다. 그 양상을 보면, 발화자와 청취자의 관계가, 신부-아들 11편, 신랑-아들 8편, 신랑-신부 5편, 말하지 않음 7편, 신랑-친구(권력자) 5편, 동생들-아들 2편이다.<sup>18)</sup>

신부가 아들에게 말할 때 주된 화제는 잉태 사건만 묻는 경우가 2편, 출산 여부에 대해서만 묻는 경우가 3편, 둘다 묻는 경우가 6편이다.<sup>19)</sup> 아들이 어머니에게 궁금한 것은 현재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소문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친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잉태에 대해서도, 출산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랑(남편)이 말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말하는가에 따라 발화의 목적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랑이 아들(들)에게 말하는 경우는 8편이 모두 출산 사건에 대한 전달의 목적을 갖는다. 또한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경우는 6편<sup>20)</sup>인데, 여기에

18) 여기에는 중복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11번 각편의 경우, 첫날밤의 사건에 대해 신부가 아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기도 한다. 말하는 사람이 첫날밤 사건에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에 따라 ‘잉태 사건’과 ‘출산 사건’으로 구분하였다. 잉태 사건은 첫날밤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첫날밤에 발생한 출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고, 말하는 사람에 따라 출산 그 자체보다 어떻게 출산하게 되었는가 그 내력을 묻는 경우도 있어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19) 신부를 발화자로 본 이유는, 첫날밤 사건의 진상은 신부와 신랑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신부에게 묻는 질문은 실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 아이는 어머니(신부)에게 자기가 정말 친아들이 아니냐를 묻는데, 실상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첫날밤에 출산한 일이나 친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발화자를 아이가 아니라 신부로 보았다.

20) 9편은 신랑이 신부에게 묻은 것은 아니나 아들이 신부(어머니)에게 물었을 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듣고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는데 오늘 저녁에야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신랑의 위구심이 해소되지 못하고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랑이 신부에게 묻는 각편과 의미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

해당하는 6편은 모두 신랑이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그 사건을 소환하여 잉태의 내력을 알고자 한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는 7편은 첫날밤 사건에서 이야기가 끝났거나<sup>21)</sup>, 첫째 아들이 출가하는데 왜 출가하게 되었는가를 밝히지 않거나, 첫째 아들이 출가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명당을 얻게 되거나<sup>22)</sup>, 신부가 자결하고 신랑의 집을 지키는 수호령이 되거나<sup>23)</sup> 한다. 이 경우들은 구연자가 구연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아들이 어머니에게 출생이나 잉태 내력에 대해 물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거나, 아들이 자신의 출생 내력에 대해 묻지 않아서 출가하지 않거나, 신부가 자결하여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3편의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있어야 할 이야기가 제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므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는 남편(신랑)이 친구에게 첫날밤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5편이다. 이때 남편의 발화는 자신이 한 일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편에게는 신부가 어떻게 첫날밤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지 중요치 않기 때문에 오로지 신부의 출산 사건 그 자체만 화제로 삼는다. 남편이 우연히 말하게 된 이 훌륭한 처세는 임금에게 알려진다. 그래서 남편은 첫날밤 발휘한 덕성으로 말미암아 벼슬길에 오르게 된다. 즉, 이 경우에는 철저히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행동을 하였는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신부(아내)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생들이 첫째 아들에게 말하는 2편에서 동생들의 역할은 다른 각편에서 첫째 아들에게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서당 친구들과 같다

---

었다.

21) 25번, 이선재 구연, <첫날밤에 아기 낳은 색시(중편)>.

22) 26번, 이수득 구연, <보은(報恩)의 묘터>.

23) 27번, 정금선 구연, <우정>.

고 볼 수 있다. 이때는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주워온 아이라는 것을 밝히며 가족이 아니라고 밀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발화라고 할 수 있다.

신부가 첫날밤에 낳은 아이를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각편은 16편인데, 이 가운데 2편을 제외하면 모두 잉태 계기가 달, 지렁이, 외해, 화신 등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로 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신부의 출산이 부정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서사 정보가 각 각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4)</sup>

번호	대계 제목	구연자	발화자-청취자	발화 사건	잉태 계기
1	장가간 첫날 아들 얻은 사람	김원중 (남, 66)	신부-아들	잉태 사건	달
2	조만능의 묘	안용인 (남, 74)	신부-아들	잉태 사건	외간 남자

24) 대계 제목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각편은 『한국구비문학대계』, (증편)을 표기한 각편은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것이다. 증편에는 신부가 첫날밤에 아이를 낳는 사건이 나타나더라도 “애기 이름은 돌배씨고 너의 이름은 잡년이로다.”라고 하거나 도망기는 각편이 신부를 받아들이는 각편보다 많이 발견되는데, 본고의 논의와는 거리가 먼 자료이기에 제외하였다. 기본 정보에 대계의 수록면을 적지 않은 이유는 <한국 구비문학 대계>에서 검색하면 해당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면의 제약이 있어 본고에서는 해당 각편의 자료 링크를 생략하였다. 또한 표로 정리한 내용에는 ‘그래서 집을 나간 아이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 혹은 ‘남편의 덕성에 대한 대가로 어떤 보상이 주어졌는가’와 관련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이는 본고에서 다루려 하는 신뢰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사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본고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살피려 한다. 후일담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살피면서 특히 첫날밤에 태어난 아이의 이인적 면모가 강조된 각편들을 ‘영웅담’으로 보는 연구도 있고, 이에 관해서는 노영근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노영근, 「<첫날 밤에 아이 낳은 신부> 유형의 영웅 서사적 성격」, 『語文研究』 90, 어문연구학회, 2016, 125~150쪽.

3	7대손의 일까지 내다 본 지관	김성기 (남, 62)	신부-아들	출산 사건	모름
4	명당에 묘를 써서 의부(義父) 은혜를 갚은 아들	조찬민 (남, 70)	신부-아들	출산 사건	모름
5	한양 조씨의 시조	신승남 (남, 69)	신부-아들	임태 사건 출산 사건	지령이
6	오이 먹고 임태된 무학대사	장성춘 (남, 70)	신부-아들	출산 사건	오이 (칭취자 없음) <sup>25)</sup>
7	달빛을 받고 낳은 아들, 쌀 나오는 구멍(1)	박동준 (남, 73)	신부-아들	임태 사건 출산 사건	달
8	햇빛을 받고 낳은 아들, 쌀 나오는 구멍(2)	김진성 (남, 73)	신부-아들	임태 사건 출산 사건	해
9	첫날 밤 해산한 아내 용서한 남편(증편)	조장계 (남)	신부-아들( 신랑)	임태 사건 출산 사건	달
10	한양 조씨 선조 이야기	박재겸 (남, 88)	신부-아들 신랑-아들	임태 사건 출산 사건	외
11	한양 조씨 시조담	강성도 (남, 69)	신부-아들 신랑-신부	출산 사건 임태사건 <sup>26)</sup>	외간 남자(꽃밭)
12	9대 독자 며느리 첫날 밤에 아기를	나경필 (남, 72)	신랑-아들	출산 사건	모름
13	첫날 저녁에 아기 낳다	원우송 (남, 72)	신랑-아들	출산 사건	모름
14	첫날 저녁에 낳은 아이	천상경 (남, 76)	신랑-아들	출산 사건	모름
15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	한숙	신랑-아들	출산 사건	외간 남자 (칭취자 없음)
16	첫날밤 낳은 아이(1979 채록 누락)	임봉진	신랑-아들	출산 사건	모름
17	첫날밤에 아이를 난 신부	서선예 (여, 68)	신랑-아들 신랑-신부	출산 사건 임태 사건	달
18	첫날밤에 낳은 아들	김미분 (여, 61)	신랑-아들 신랑-신부	출산 사건 임태 사건	모름 <sup>27)</sup>
19	첫날밤에 낳은 달님아들	백부우 (여, 77)	신랑-신부	임태 사건	달
20	달을 먹고 낳은 정승	최금순 (여, 63)	신랑-신부	임태 사건	달

21	첫날밤에 낳은 아들	김봉학 (남, 68)	말하는 사람 없음	없음	모름
22	조씨네 선조	한필주 (남, 82)	말하는 사람 없음	없음	달(청취자 없음)
23	첫날 밤에 낳은 아들	이기환 (남, 62)	말하는 사람 없음	없음	모름
24	지렁이 자손	민영곤 (남, 57)	말하는 사람 없음	없음	지렁이 (청취자 없음)
25	첫날밤에 아기 낳은 색시(증편)	이선재	말하는 사람 없음	없음	모름
26	보은(報恩)의 묘터	이수득 (남, 75)	말하는 사람 없음	없음	모름
27	우정	정금선 (여, 71)	말하는 사람 없음	없음	모름
28	마음 바른 사람의 급제	이동균 (남, 72)	신랑-친구/ 권력자	출산 사건	모름
29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 거둔 신랑	김봉순	신랑-친구/ 권력자	출산 사건	모름
30	이해심이 깊은 신랑	박정상 (여, 60)	신랑-친구/ 권력자	출산 사건	모름
31	하늘이 도와준 일	정성철 (남, 77)	신랑-친구/ 권력자	출산 사건	모름
32	첫날밤마다 혼나고 세 번 장가간 이야기	김교운 (남, 60)	신랑-친구/ 권력자	출산 사건	모름
33	공 깊은 의붓 자식	양형희 (남, 56)	동생들-아 들(큰형)	입양 사건	모름
34	첫날밤에 낳은 선관의 아들	김돌룡 (여, 77)	동생들-아 들(큰형)	입양 사건	달(청취자 없음)

- 25) 이하 잉태 계기란에 ‘청취자 없음’을 표기한 각편들은 발화자가 ‘출산 사건’에 대해서만 묻거나 누구도 묻지 않았는데 구연자가 그 내력을 덧붙인 경우에 해당한다.
- 26) 이 각편의 경우 발화 사건의 기재 순서가 다른 각편과 다른 이유는, 발화자-청취자와 발화 사건의 대가 이루어지도록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각편은 신부-아들의 관계에서는 출산 사건 중심으로, 신랑-신부의 관계에서는 잉태 사건 중심으로 묻고 답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 27) 다른 각편들은 잉태 사건에 대해 묻게 되면,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각편의 경우에는 아내가 ‘왜 묻느냐’고 질문은

본고에서는 <첫날밤>에 속하는 34편의 각편 가운데 신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경우와, 신랑이 신부에게 묻는 경우,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은의 과정에 나타나는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아들이 출가한 후 아버지에게 보은한다는 것은 어머니(신부)에게 이미 출산 사건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았다. 즉,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고, 생략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신랑이 아들(들)과 친구들에게 말하는 경우와 동생들이 큰아들(들)에게 말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자 한다. 신랑이 아들(들)에게 말하는 경우에서 신랑은 장성한 아들(들)에게 첫날밤 사건을 말해주면서, 큰아들이 이때 태어난 아이라고 밝힌다. 이 경우는 신랑이 누가 집안의 장자인가 하는 문제를 화두로 삼게 한다는 점에서 큰아들을 가외로 밀어내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부부 관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신부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는 입장과 기를 수는 있지만 내 아들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신부의 과거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라 할 수 있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데 강조점이 있어 부부 관계의 신뢰를 논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동생들이 큰아들(들)에게 혼외자임을 밝히는 경우도 후계자 문제를 주안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부부 관계에 초점을 둔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랑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 또한 배우자에 대한 깊은 애정보다 사람을 살리는 인류애를 발휘한 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부부 관계를 논하기에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첫날밤>에 속한 34편 중 15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sup>28)</sup> 남편이 아내의 치부가 될 사건을 덮어 자신과 아내 둘만의 비밀로 만들고 아내를 살린다. 그리고 부부로 살아가던 어느 날, 아내의 치부가 다시금

---

로 되받는다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잉태 사건이 화제가 되는데 그 내력이 밝혀지지 않은 각편은 이 각편이 유일하다.

28) 표를 기준으로, 1~9번, 11번, 19~27번이 해당한다.

화제가 된다. 큰아들이 화제로 삼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친자가 아니리는데 정말 그러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목적을 갖는다. 신랑이 화제로 삼는 경우에는 신부가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가 인과관계를 알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큰아들은 출산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부터 말해야 하는 것이고, 신랑은 출산 사건을 알기 때문에 잉태 사건만 말해도 되는 것이다. 두 경우는 큰아들과 신랑의 입장이 달라서 묻는 내용이 다를 뿐, 이 질문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두 경우 모두 신부의 출산이 다시 화제가 되는 시점에서 부부 관계의 위태로움이나 불안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아이가 제 갈길을 가게 되지만, 부부는 부부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충실히 살아갈 뿐이다. 첫날밤 사건에서 신랑이 과시적인 시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포용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신랑이 신부를 아내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배우자로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출산 사건은 신랑의 주도하에 수습되고 신부는 신랑이 하자는 대로 그저 따를 뿐이다. 이때는 일시적으로 부부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신랑 쪽으로 주도권의 추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신랑이 그렇게 하면서 지켜낸 것은 신부가 아내로서 살아가는 데 거리낄 것이 없게 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아내의 출산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위에는 다만 큰아들이 신행길에 주워온 아이라는 것이 알려졌을 따름이다. 따라서 신랑이나 신부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부부 관계가 부부답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첫날밤에 일시적으로 무너졌던 부부 관계의 균형은 이후의 삶을 통해 회복되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부부로 살아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세월이 흘러 잉태 사건에 대해 말하는 신부가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왜곡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는 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첫날밤 사건이 소환되어도 과거의 사실이 환기될 뿐, 이로 인해 부부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두 사람의 결속이 단단하여 상대가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하여도 관계를 무너뜨릴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님을 믿는 신뢰가 전제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도량>과 대비된다. <첫날밤>이 결국 과거의 일을 말하기에 무게를 둔다면, <도량>은 과거의 일을 말하지 않기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도량 넓은 남편>의 경우, <첫날밤>에 비해 각편마다 핵심적인 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도량>은 부부 관계에 중대한 위기를 야기하는 동침 사건이 남편의 인덕으로 봉해지는 일련의 과정이 서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입장이나 관점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등장할 뿐, 동침 사건 전까지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다. 서사의 대부분이 남편보다 간부라 할 수 있는 아내의 전남자의 입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sup>29)</sup> 기본적인 줄거리의 흐름과는 다르지만, <첫날밤>과의 비교를 위해 남편의 입장을 중심으로 동침 사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형)

- (1)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한 대갓집의 남자가 혼자 절에 들어가 공부하고 있었다. 본가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있었다.
- (2) 어느 날, 남자의 형제가 남자에게 연락하여 아내에게 간부가 있는 듯하니 얼른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 (3)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여장을 한 간부와 한 방에 있다는 가족의 말을 듣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소란을 피우며 방으로 들어갔다.
- (4) 남자는 바깥까지 들리게 사죄의 말을 하며 방에서 나와 여자가 맞는데 잘못 알고 그랬다며 가족을 나무라고 절로 돌아갔다. 간부는 아내에게 이별을

29) <도량>의 이러한 서사 전략은 남편이 이해한 것이 무엇인가를 짐작하게 하고 전달하는 데 주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정운채(2006), 앞의 논문, 219쪽.

고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유형)-1

(5) 세월이 흘러 급제하여 출셋길에 접어든 남자는 조정에서 간부를 마주쳤다. 남자는 간부가 과거의 일을 알은채하며 감사 인사를 하기에 편잔을 주었다.

(유형)-2

(5) 세월이 흘러 급제하여 출셋길에 접어든 남자는 조정에서 간부를 마주쳤다. 남자는 간부와 과거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잘 지냈다.

<도량>의 기본형은 아내가 간부와 동침하는 장면을 목격한 남편이 주위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가림막 역할을 자청하며 아내를 사회적 지탄으로부터 지켜낸 후, 이를 보고 잘못을 깨달은 간부가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까지이다.<sup>30)</sup> 이후 남자와 간부가 모두 출셋길에 오르게 되는데, (유형)-1은 간부가 남자를 반가워하며 감사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유형)-2는 간부와 남자가 모두 과거의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첫날밤>에 비해 후일담의 유형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동침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5편과 4편으로 나타나는 비율도 비슷하다. 다시 화제로 삼는 인물이 간부라는 것도 다르지 않다.

<도량>의 후일담에서 이 사건을 다시 화제로 삼는 발화자와 이를 듣는 청취자는 항상 간부와 남편이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말하게 되는 사건은 동침 사건뿐이다. <첫날밤>에서 첫날밤 사건이 출산 사건과 잉태 사건으로 분화되는 까닭은 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신랑은 출산 사건을 겪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를 궁금해할 이유가 없다. <도량>에서 남편도 동침 사건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도량>의 후일담에서는

30) 9번, 유태운 구연, <배포 큰 정승 아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후일담의 유형을 구분한 이유는, 동침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된 상황과 되지 않은 상황이 서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대비해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를 통해 서사상 동침 사건이 훗날 누군가에 의해 다시 환기되어도 관계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일담의 역할은 그 후로 다시 그 일이 화제가 되기를 남편이 원치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도량>에서 후일담과 동침 사건의 관계는 <첫날밤>에서 후일담과 첫날밤 사건의 관계와 동일하다. 후일담은 앞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입장과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각 각편에 해당하는 서사 정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대계 제목	구연자	발화자-청취자	발화 사건
1	표용력있는 판서 이야기	이현욱 (남, 64)	간부-남편	동침 사건
2	동서동방(同媾同房) 이야기	신승철 (남, 67)	간부-남편	동침 사건
3	남편의 기지(機知)	김동기 (남, 85)	간부-남편	동침 사건
4	신랑의 아량	권영복 (남, 79)	간부-남편	동침 사건
5	김정승의 도량에 감복한 박참관	이동현 (남, 66)	간부-남편	동침 사건
6	김씨와 이씨의 혼약	여종한 (남, 68)	없음	없음
7	동서동방(同棲同房)하고도 맺은 의형제	이이룡 (남, 82)	없음	없음
8	신랑의 아량	조상묵 (남, 79)	없음	없음
9	배포 큰 정승 아들	유태운 (남, 82)	없음	없음

표에서 보듯이, <도량>에 속하는 각편들의 후일담 이본 양상은 단조로운 편이다. 동침 사건을 다시 화제로 삼는 인물이 남편이 아닌 이유에 대해 정운채는 이에 대해 남편이 동침 장면을 본 순간 ‘사실을 밝히고 다스릴 경우 인명이 크게 다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된다는 점, 사실을 덮어두고 용서할 경우 오히려 집안이 화평해진다는 점’을 짐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그 후에라도 아내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묻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작품에서 아내와 간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관계의 역사가 비중 있게 다뤄진다고 해도 이는 작품 밖의 상황이고, 작품 속의 남편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남편은 (유형)-1과 (유형)-2에서 모두 의도적으로 동침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1)</sup>

즉, 서사가 취한 전략과 등장인물이 취한 전략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유형)-1에서는 남편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 말하는 간부에게 “너 정승 자격으로 알았더니 판서밖에 못되겠다.”<sup>32)</sup>고 핀잔을 준다. 이는 다시 화제로 삼아 걸으로 드러내게 되면 얽혀 있는 사람 모두를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마음을 표현하겠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꺼내놓는 경솔함에 대한 나무람이라 할 수 있다. (유형)-2에서는 남편처럼 간부도 아무 말하지 않는다. 이때는 간부가 남편과 같은 염려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사에서는 남편과 간부를 재회하게 하여 서사 밖의 사람들로 하여금 동침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게 한다. 기본형 1편을 제외하면 나머지 8편에는 후일담이 있다. 후일담에서 남편은 누구든 동침 사건을 다시 화제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천명한다. 이는 어떤 의도로든 상대가 한

31) 이에 대해서는 <도량>에서 남편과 유사한 문제 상황에 놓인 처용이 취한 전략으로, 처용이 벽사진경할 수 있는 힘이 ‘불어(不語)’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취한 것이다. 정운채(1998), 앞의 논문, 23~24쪽.

32) 4번. 권영복 구연, <신량의 아량>.

잘못을 들추지 않아야 부부 관계의 결속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부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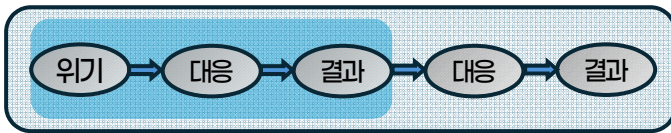
이처럼 <첫날밤>과 <도량>에는 부부 관계의 신뢰가 절박한 위기에 놓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남편이 아량과 지혜를 발휘하여 아내를 위기에서 구하며 사건을 갈무리해낸다. 본고는 이처럼 주제면에서 배우자에 대한 아량과 실천을 보여주는 두 작품이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내놓는 대응책이 왜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였다. 일단 두 작품에서 유사한 문제 상황으로 간주하고 견주어 볼 만한 지점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를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의 전남자가 얽히게 되는 관계의 구도가 동일하다. <첫날밤>에서는 아내의 전남자가 인간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환상적 존재와의 교합이라 해도 이로 인해 아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아내는 부정한 여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놓이고, 남편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긴다. 남편이 혼외정사를 비난하는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면 세상과 한편이 되어 아내를 비난하는 선택지를 택할 수 있다. 반면 제도적 윤리보다 상생적 윤리를 중시하면 아내를 보호하는 선택지를 택할 수 있다. 두 작품은 이 인간관계의 구도에서 남편을 고민케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남편은 남부러울 것 없는 대갓집 자제다. 남편에게 아내의 외도 이외에 다른 인생의 고민은 없다. 남편의 선택에는 생활고나 출세욕 등 다른 고민들이 섞이지 않는다.

둘째, 남편이 부부 관계에서 당면한 문제의 속성이 닮아있다. 남편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둘이다. 하나는 남편에게 문제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즉각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남편은 아내의 출산 또는 외도를 목도하며, 이를 수습하려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아내의 잘못이 명백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신속하게 행동하여 아내의 잘못을 덮는다. 남편은 완전한 방공호가 되어 공동체의 윤리가 배우자를

공격할 수 없도록 아내의 잘못을 철저히 감춘다. 그리고 자신 역시 비밀 유지의 책임을 지며 배우자와 운명공동체로 살아간다. 다른 하나는 훗날 다시 아내의 실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마주해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첫날밤>에서는 아이 혹은 그 자신(남편)이 과거의 일을 다시금 화제로 꺼낸다. <도량>에서는 간부가 다시 화제를 꺼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화제로 꺼내는 사람에 차이가 있지만 남편은 아내의 잘못을 다시 마주해도 흔들림이 없어 아내와 단단한 결속을 이루고 있음을 입증한다.

셋째, 사건이 나타나는 순서와 문제에 대한 대응 과정이 동일하다. 1차 사건이 발생하여 부부 관계에 위기가 발생하지만 대응에 성공하여 위기는 일단락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일이 얼마쯤 흘러 1차 사건으로 말미암은 2차 사건이 발생한다. 2차 사건에 대한 대응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가 견지되며 부부 관계가 변함없이 지속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작품의 구조

첫 번째 네모가 1차 포용담이라면, 두 번째 네모는 2차 포용담이라 할 수 있다. 즉, 두 작품은 포용담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 구조를 채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부 간의 신뢰란 시간을 들여 쌓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쌓은 신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엔 필요한 구조일 수 있다. 즉, 부부 관계의 위기가 궁극적으로 극복되는 때를 보여주기엔 적합한 구조라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첫날밤>과 <도량>은 부부 관계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부부 관계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일시적 회복과 지속적 회복, 두 단계로 보여주며 완전한 신뢰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불시에 발생한 문제는 남편의 아량으로 수습하고 지나가지만, 이는 부부 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위기는 극복되었더라도 남편이 관계의 주도권을 쥔 채 마무리가 되어 관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지속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때의 안정성은 일시적이다. 그런데 결국 그 문제가 이후의 삶에 다시 화두가 되면서 '어느덧 세월이 흘렀다'고 처리된 그 서사의 공백에 부부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유추하게 한다. 그 후로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충실하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충실한 세월이 쌓이면, 그때야 남편이 아내에게 시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공존을 택해 동반자로 인정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성을 회복해야 건강한 부부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부부 관계의 신뢰가 공고함을 방증한다. 따라서 두 작품 속 부부는 신뢰를 토대로 균형성을 회복한 관계의 강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첫날밤>은 부부 관계의 신뢰를 전제로 '말하기' 전략을 취하고, <도량>은 '말하지 않기' 전략을 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3장에서는 이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 3. 신뢰의 징표로서 '말하기'와 '말하지 않기'의 서사적 차이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첫날밤>과 <도량>은 굳건한 신뢰로 엮인 부부 관계의 본모기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 이를 전하기 위해 초석으로 삼는 관계의 구도, 문제의 속성, 서사의 구조 등에서도 상동하는 지점들이 발견된다. 두 작품에서 부부 관계와 관련한 핵심적 메시지는 남

편을 통해 전달된다. 대갓집에서 순탄히 살아온 남자가 혼인 후에 예기치 못한 위기를 겪게 된다. 아내가 혼인 전에 정을 나는 남자와의 인연을 정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위기이다. 이 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내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남자는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부정을 엄봉하기로 결정한다. 여기까지는 아내에게 살길을 터준 남편의 덕성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작품은 후일담을 붙여 그 이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 암시한다. 작품의 내용으로 단정할 수 있는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 꼭 관계의 건강성을 의미하는 지표는 아니다.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에 대해 남편은 아내를 믿을 수 없을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언제 다시 그 문제를 들춰지 몰라 불안해하며 마지못해 버틸 것이라고 추정하는 반응도 있다.<sup>33)</sup> 그런데 후일담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다행히도 부부 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두 작품은 부부 관계의 결속을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다. <도량>이 배우자의 치부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전하는 것과 달리 <첫날밤>은 다시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전한다. <첫날밤>에서 ‘말하기’를 선택한 상황적 맥락과, <도량>에서 ‘말하지 않기’를 선택한 상황적 맥락을 비교해보면, 신뢰가 두터운 동반자적 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남편의 처세를 다시 들여다보면, 대외적 처세와 대내적 처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외적 처세는 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체 사건을 만들어서 부부 사이에 생긴 문제를 감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3) 이러한 반응은 두 작품에 대한 감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조은상은 「설화 <도량 넓은 남편>을 활용한 창작활동의 치유적 가능성」에서 <도량 넓은 남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소개한 바 있다. 조은상, 「설화 <도량 넓은 남편>을 활용한 창작활동의 치유적 가능성」, 『구비문학연구』 34, 한국구비문학학회, 2012, 311~363쪽.

남편은 공동체 사회가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아내를 포용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공동체는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도덕과 윤리의 위반을 엄벌해야 하고, 혼외정사는 공동체의 규범이 허용할 수 없는 일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공동체에 아내의 위반 사실을 철저히 감춘다. 이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아내의 치부가 공개되었을 때 벌어질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편은 아내의 잘못을 자신과 아내의 관계 문제로 한정하는 데 성공한다. 아내의 잘못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남편의 포용만으로는 사회적 지탄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의 수치를 감추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남편의 의지만 있으면 부부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효용을 얻게 된다. 또한 아내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 또한 있다. 아내가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받게 될 심리적 상흔은 막을 수 없더라도 사건의 공개로 인해 받게 될 심리적 압박은 방지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한 최선의 사태 수습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관계 내적으로는 아내에 대해 무조건적인 포용의 태도를 견지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가 아닌 누구도 아내의 치부를 알 수 없게 엄폐한다. 이때의 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이해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남편의 신속하고 단호한 엄폐 행동은 아내를 향해 부부 관계를 재고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남편은 아내의 순결함을 믿어서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도 포용하는 것이다. 즉, 허물이 없음을 믿어주는 포용이 아니라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는 포용이다.

남편의 첫 번째 포용은 신뢰 형성의 초석을 놓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조건적 포용이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지만, 신뢰에 필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부부 관계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아내의 미숙한 면까지 있는 그대로의 전부를 받아들

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편은 아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남편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부부의 의리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앞으로 쌓아갈 신뢰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부부의 신뢰가 연약하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 이 단계의 부부 관계는 남편의 일방적 배려로 이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포용해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부부 관계는 성숙할 수 없다.

두 번째 사건은 부부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을 다시 화제로 등장시켜 그 후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보낸 시간이 어떠했는가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준다. 첫 번째 사건이 왜 다시 화제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남편의 무조건적 포용으로 아내의 치부가 덮였다는 것만으로는 부부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말하기에 미진함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는 두 번째 사건을 통해 첫 번째 사건의 자장에서 벗어났음을 입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날밤>은 ‘말하기’의 전략을, <도량>은 ‘말하지 않기’의 전략을 취한다.

<첫날밤>에서는 아이 또는 남편이 과거의 사건을 화제로 띄운다. 이때 아이의 목적과 남편의 목적은 다르다. 아이의 목적은 자신의 출생에 관해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더러 아이에게 그림자가 없다고 하는데, 비꾸어 말하면, 발붙이고 서 있다는 안정감이 없는 공허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아이를 업둥이로 알고, 아이에게 이를 전한다. 아이에게 출생의 비밀을 아는 일은 자기 존재를 이해하려는 시도이기 중요하다. 아이는 이를 알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가 묻는다. 그런데 어머니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가 첫날밤에 낳은 자신의 친자식이라는 것이다. 더 뜻밖인 것은 친아버지가 신령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양부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후에 아이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을 깊어지고 출가하면서 서사에서 부부의 이야기는

전경으로 밀려나고 아이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본고에서는 아이의 출생을 말하는 과정에서 부부 관계의 어떠한 이면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아내는 아이에게 너의 아버지가 후한 덕분으로<sup>34)</sup>, 혹은 짐झ은 덕분으로<sup>35)</sup> 아무도 모르게 낳은 아이를 맡아서 키울 수 있었다고 한다. 또는 출산 또는 잉태와 관련하여 있었던 일만 이야기하기도 한다. 아버지의 덕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에게 감사를 일깨우기 위해 하는 말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 어머니가 하는 말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아이의 반응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아이가 보기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아버지에게 감사하라는 어머니의 말이 아이에게 그 의미 그대로 전달될 수 없다.

아이의 진심을 담은 감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를 후하고, 짐झ게 대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아내의 태도를 통해서도 남편과의 관계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아내에게는 이 말을 다시 꺼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출산은 남편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잉태의 내력은 남편도 이때에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가 잘못해서 잉태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에 불안이 없기 때문이다. 남편이 아이의 존재를 아내의 부정과 연결하였다면 아내에 대한 불신은 아내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내의 이 말은 아이에게 누구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니 존재를 부정하다 여기지 말라는 위로가 된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부정한 존재로 대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덧붙여, 아이가 열대여섯이 되어 집 밖의 사람들에게 전해 듣기 전까지 출생의 내력에 대해 의구심

34) 신승남 구연, <한양 조씨의 시조>.

35) 조장계 구연, <첫날 밤 해산한 아내 용서한 남편>.

을 품지 않는다는 것 또한 남편과 아내가 맺고 있는 부부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질문을 던질 때의 목적은 아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도 아내의 잉태 내력과 관련한 이야기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게 꺾지 못할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내의 잘못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모든 것을 꼭 말해야 할 필요도, 굳이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사연도 없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세월이 흐른 후에 묻는다는 것은,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문제를 다시 화제로 삼더라도 남편과 아내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여야 하고, 부부 관계가 다시 이 문제를 마주해도 흔들리지 않을 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이와 남편이 아내에게 던지는 질문은 자신들이 당면한 현재의 문제와 관련된다. 아이에게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에, 남편에게는 배우자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소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량>에서는 간부가 과거의 사건을 화제로 띄운다. <첫날밤>에서는 사건을 현재로 다시 소환하는 사람이 아이 또는 남편이다. 아이도, 남편도 타인이 아닌 자신의 문제이기에 말할 수 있는 자격이 확보된다. 그런데 이는 간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남편은 간부 역시 관계의 당사자이지만, 간부가 이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도 안 된다는 것이다. <첫날밤> 속 남편의 말하기와 <도량> 속 간부의 말하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첫째로 목적에 차이가 있다. 간부는 남편에게 과거의 일을 꺼내며 잘못을 덮어준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sup>36)</sup> 여기에는 간부의 죄책감과

이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간부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덮으면서 간부의 잘못도 같이 덮였기 때문이다. 즉, 자기 잘못을 용서해준 데 대한 고마움인 것이다. 따라서 간부의 감사는 죄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동침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에 얽혀 있는 죄의식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간부의 감사는 과거의 미결된 과제로 인한 것이고, 이를 털어내고자 하는 자기중심적 목적을 갖는다. 이에 반해 남편이나 아내가 내심 동침 사건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표현이 없다. 간부의 말하기가 자기 속풀이를 위해서라면, 남편과 아내는 맺힌 마음이 없어서 풀어낼 이야기도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훗날의 부부에게는 이미 과거에 완결된 일이어서 말할 거리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둘째로 관계의 차이가 있다. 동침 사건은 아내와 간부가 일으키고 남편이 지켜본 일이다. 아내, 간부, 남편이 모두 이 사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간부가 다시 이 일을 화제로 삼는 때는 간부와 아내의 관계가 이미 청산된 후이다. 남편의 편안은 간부에게 더 이상은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현재의 남편과 아내는 간부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간부가 동침 사건을 소환하면 세 사람 사이에 긴장 관계가 다시금 형성된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 간부의 말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이러한 영향력을 갖는다. 따라서 남편의 편안은 간부에게 자신의 치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

36) 자기 맘에, 자기 살려준 은인이기 땀에 그 당시 뻘히 남잔 줄 알구서 그렇게 했는데, 살려준 은인인데, “내가 이거 감사한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비로소 인저 조용한 자리를 택해 가지구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듣더니, “음, 나는 자네를 좀 더 큰 사람으로 보았는데 글로 끝났구면 사람이 모잘라. 그 내한테 얘기할 필요가 뭐 있나?” 그거 한 마디를 대답을 하고 말어요. <도량 넓은 남편> 2번, 신승철 구연, <동서동방 이야기>.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무지함에 대한 경고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못 되겠다’는 경고는 상대를 향한 가벼운 수준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간부의 말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대응의 강도도 강할 텐데, 대응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남편의 대응을 통해 아내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다. 남편은 간부의 재등장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이다. 이는 <도량>의 두 번째 사건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간접적 단서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부부 관계에서의 신뢰를 다루고 있는 두 작품, <첫날밤>과 <도량>을 살펴 상대의 치부에 대한 ‘말하기’와 ‘말하지 않기’가 관계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 수 있다. ‘말하기’와 ‘말하지 않기’는 모두 신뢰를 지키는 방식이자, 신뢰의 강도를 보여주는 징표가 될 수 있다.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동반자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상대의 치부는 아무 때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려해야 하는 상황적 맥락이 있다. 일상의 순간에서 상대의 치부는 ‘말하지 않기’가 기본이다. 이는 <첫날밤>과 <도량>에서 모두 전제로 삼고 있는 바다. 그런데 때때로 ‘말하기’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 말하려는 사람의 절실한 필요가 치부를 가진 사람에게 공감될 수 있을 때, ‘말하기’가 가능해진다. 또한 치부에 얽힌 부정적 감정이 현재에 이미 완결된 과제에 속해 있어야 한다. 두 작품을 통해 이를 가능케 하는 힘은 동반자와의 신뢰 관계를 통해 축적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말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짚어낼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적 맥락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에 미치는 영향,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말하기’는 소리를 줄더라도 듣는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누구까지 듣게

해도 되는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첫날밤>에서는 현재에 새롭게 발생한 어떤 문제로 인해 과거의 사건에 대한 말하기가 필요할 때 말하기가 시도된다. 그리고 두 작품은 모두 사회가 개인의 치부에 대해 모두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말하기'는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그런데 치부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배우자와의 관계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는 공유할 수 없다. 이를 테면, <도량>의 간부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말하기'는 과거를 현재로 소환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로 인해 현재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시도되어야 한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와 <도량 넓은 남편>을 비교 분석하여 부부 관계와 같은 동반자적 관계에서 신뢰를 지속해 나가는 방식에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두 작품이 아내를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의 전남자가 엮히는 삼각관계를 전제하고 있고, 남편이 아내의 치부를 사회적으로 감추고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대응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첫 번째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의 부정을 엄폐하고 무조건적으로 포용해 신뢰 형성의 초석을 놓는다. 또한 남편은 대외적으로 아내의 치부를 사회로부터 감추고, 관계 내적으로 이를 문제 삼지 않아 동반자에 대한 무조건적 포용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보여준다.

두 번째 사건은 부부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첫날밤>은 '말하기' 전략을, <도량>은 '말하지 않기' 전략을 취한다. <첫날밤>에서는 아이

나 남편이 과거 사건을 화제로 삼아 자신의 존재나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려는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한다. <도량>에서는 간부의 과거 사건 언급을 남편이 경계하며, 청산된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의 부적절함을 지적한다. 두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동반자와의 관계에서 ‘말하기’와 ‘말하지 않기’ 모두 신뢰를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기’가 시도되는 <첫날밤>에서도 일상에서는 상대의 치부에 대해 ‘말하지 않기가’ 기본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말하기’는 동반자에 대한 이해를 무르익게 하여 관계의 결속을 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두 작품의 공통점은 상대의 치부는 말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하필 그 문제가 간통이라는 아내의 도덕적 타락과 관련하기 때문에 이를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일이 없었던 체하려는 시도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즉, ‘말하지 않기’는 질서를 위협한 아내의 일탈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또는 은폐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편의 목적이 현재의 공동체 질서를 흐트러트리지 않는 데 있다면, 남편에게 아내의 외도는 말해봐야 손해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일 뿐, 신뢰로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남편의 침묵은 어찌 보면 나 하나만 참으면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다는 자기 희생적인 태도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남편의 말하지 않음이 공동체의 질서 유지보다, 공동체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아내를 감싸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해도 아내의 간통은 행실이 부족하다는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래서 아내의 미숙함은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이미 드러난 바이다. 그런데 아내가 그 사건을 말할 때 마치 갑자기 영문 모르게 겪은 사고와 같았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내는 남편

에게 그 사건이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이해해줄 것을 요청한다. 실제로 간부에게 감정적 동조가 있었거나, 혹은 없었거나, 아내의 혼외정사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아내는 그 사건을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로 말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남편은 사실 관계를 따지기보다, 아내가 어떻게 말하고 싶어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도량>도 이와 연장선상에서 아내가 그 사건을 말하는 내용이 없고, 남편이 간부에게 그 사건을 왜 말하느냐고 하는 부분을 보면,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하지 않음에 가깝다. 남편이 그 사건에 대해 말해서 배우자를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충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두 설화는 부부 관계에서 신뢰의 형성과 유지가 단일한 방식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진정한 신뢰는 시간을 들여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대의 치부를 대하는 방식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렇게 형성된 신뢰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두 설화는 부부 관계의 신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 강미정, 「영화 <라쇼몽>을 매개로 본 <배신한 신부와 의리 지킨 몸종>에서 <도량 넓은 남편>까지」,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295~323쪽.
- 김도형, 「여성부정출산담의 유형과 의미 -결혼제도와 이중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우리文學研究』 67, 우리문화회, 2020, 7~27쪽.
- 노영근, 「<첫날 밤에 아이 낳은 신부> 유형의 영웅 서사적 성격」, 『語文研究』 90, 어문연구학회, 2016, 7~27쪽.
- 류명옥, 「“간통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의로움(義)의 이면적 의미 -간통한 아내 용서하고 간부(姦夫)를 조정에서 만나다-유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회, 2013, 477~499쪽.
- 유형동, 「설화에 나타난 혼인에 따른 여성의 入社障礙와 해결의 양상 - <아내의 허물 감싼 남편> · <시부모를 길들인 며느리> 유형을 중심으로-」, 『우리文學研究』 72, 우리문화회, 2021, 113~143쪽.
- 정운채, 「<처용가>와 <도량 넓은 남편>의 관련 양상 및 그 문학치료적 의의」, 『고전문학과 교육』 12, 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06, 213~231쪽.
- 정운채, 「문학치료와 자기서사의 성장」, 『우리말교육현장연구』 4-2(통권 제7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0, 7~54쪽.
- 정운채, 「부부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 『서사와문학치료』 1,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2009, 305~362쪽.
- 정운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통일서사」, 『인문학논총』 47,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5~28쪽.
- 정운채,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2008, 361~397쪽.
- 조은상, 「설화 <도량 넓은 남편>을 활용한 창작활동의 치유적 가능성」, 『구비문학연구』 34, 한국구비문학회, 2012, 321~363쪽.
- 최진형, 「구전설화에 나타난 ‘과격’-가족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상황과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75~114쪽.
- 하은하, 「바람난 배우자에 대한 설화 속 대응양상과 이를 활용한 문학치료적 설계」, 『고전문학과교육』 21, 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11, 169~197쪽.
- 한지원, 「공감의 구조를 포함한 설화에 나타나는 공감의 양상과 의미 -혼사 소

재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우리文學研究』 69, 우리문학회, 2021, 233~265쪽.

홍나래,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덕(德)의 의미와 그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회, 2011, 197~226쪽.

ABSTRACT

〈The Bride Who Had a Child on Her First Night〉 and  
〈The Husband Who Was Too Generous〉 the Epic Meaning  
of ‘Telling’ and ‘Not Telling’ of Trust

Kim, Juong-hee

This paper analyzes how ‘telling’ and ‘not telling’ affect trust in a couple’s relationship by comparing ‘The Bride Who Gave Birth on the First Night’ and ‘The Generous Husband’. To this end, Chapter 2 discusses the overcoming of marital crises and the development of trust in the two works, and Chapter 3 discusses the narrative differences between ‘telling’ and ‘not telling’ as a sign of trust.

The narrative structure of both works is based on two embraces. In the first event, the wife’s infidelity (giving birth on the first night or adultery) occurs and the husband embraces it to preserve the relationship, but the relationship is one-sided. This imbalance is restored in the second event. In the second case, a past incident involving the wife’s infidelity is brought up again after the passage of time, proving that trust has been built up in the couple’s relationship during the intervening time.

The comparison of the two works also reveals the usefulness of both ‘telling’ and ‘not telling’ strategies in a trusting relationship. 〈In “The Bride Who Gave Birth on the First Night,” the strategy of ‘telling’ appears, where ‘telling’ is a necessary process for establishing the son’s identity or deepening the husband’s understanding of his wife, and explaining past events is necessary in the present.

On the other hand, the strategy of ‘not telling’ is emphasized in ‘The Generous Husband’. When the husband witnesses his wife sleeping with an executive, he covers it up, and when the executive later tries to mention the incident, the husband stops him. Here, “not telling” is a way

of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couple's relationship, and a strategy to block the negative impact that bringing up the past would have on the relationship. This is because the speaker is the cadre, and the cadre is revisiting the events that brought the couple to the brink of crisis in order to resolve his own emotional pending issues.

The comparison of the two stories shows that both 'telling' and 'not telling' can be ways of preserving trust, depending on the context of the situation. In conclusion, the message of the comparison between the two stories is that building and maintaining trust in a relationship is not reducible to a single method, and that true trust is demonstrated through a process of building over time.

**Key Words** <The Bride Who Had a Child on Her First Night>, <The Husband Who Was Too Generous>, Telling, Not Telling, Trust between couples

논문투고일: 2025.4.20. 심사완료일: 2025.5.9. 게재확정일: 2025.5.19.
--

